

해피밀 시즌 4-4호를 발간하며,
주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구해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보면 때때로 예
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합니
다. 이토록 헌신했는데 어려움을 주신
다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
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피밀 4호는 많은 도
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헌신
하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그들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생겨난 갈등도 해
결하셨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선교 사역을 계획하다가 다투게 된 바
울과 바나바의 흠어짐도 사용하여 결
과적으로 복음이 더욱 확장되게 하셨
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들의 헌신과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셨습니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해피
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실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
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더욱 힘써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8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Park Jung'.



행 15:22-29

율법의 짐 내려놓기

... 25-26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27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율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할 것인지 아니면 율법의 짐에서 자유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교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규례는 정하였습니다(29절). 그 이유는 이방인 위주로 구성된 각 교회들이 자유를 오남용하여 방탕해지지 않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2천 년 전의 결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은혜를 선물합니다. 율법의 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복음 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행위만 요구하는 몹시 이상하고 무거운 굴레가 되어 사람들을 구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예배에 잘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그렇지 못한 성도를 보면서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무시당한 성도의 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보다 다른 성도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짐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구속합니다. 그리하여 한줌의 자유와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깊은 은혜를 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가볍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율법의 짐을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타인에게도 그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기로 하였나요?
2.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려 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행 15:30-35

복음 안에서 얻는 기쁨

30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 하더라 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4 (없음) 35 바울과 바나 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담은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을 속박하려 했던 율법의 집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 존재했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다툼 이유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신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 신자를 아프게 했던 모든 갈등, 상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자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기쁨에 차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편지에 기록된 복음적인 내용으로 위로와 기쁨을 얻었듯, 우리는 사도들의 편지가 담긴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위로와 기쁨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집중하여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을 바라시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잘 쓰여진 수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와 기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와의 관계 회복을 더욱 구하시며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복음적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전하며 안디옥 교회에 위로를 전달한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분투하기를 꺼리지 않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 경험함으로써 복음적 위로와 기쁨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가장 최근에 복음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경험한 적은 언제였나요?
2. 주변에 복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행 15:36-41

갈등이 생겼을 때

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당시 개척했던 교회들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들을 더욱 세워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한 계획은 오히려 이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가의 합류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마가가 버가에서 자신들을 떠났으므로 이번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마가의 자질을 보고 그가 동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싸운 후 각기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실라는 바울처럼 로마시민인 신자였으며 이후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이었던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다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주장하는 바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조금도 문제되지 않지만, 연합하기에는 무척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순간 말입니다. 만약에 이 일로 누군가의 마음이 상한다면 서로 다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다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죄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구의 사역도 멈추거나 무너지지 않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선한 사역 가운데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깨어진 관계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역시 훗날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훗날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무척 소중한 존재로 발돋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다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복음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는 복음적 교제 말입니다. 부디 주님과과의 교제를 통해 선한 사역도, 선한 관계도 모두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교회에서 선한 사역을 두고 누군가와 다툼 적이 있나요?
2. 혹 여전히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나요? 복음적인 소통을 위해 은혜를 구하십시오.





행 16:1-5

복음 안에서 포기할 자유

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 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4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지난 월요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율법의 짐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율법은 오직 행위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척 무겁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이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은 줄 수 없는 온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다소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던 중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신실하며 선한 성품으로 사람들 사이에 좋은 평판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기로 결정하고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선교팀에 들어와 처음 맡은 사명은 놀랍게도 '할례 받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을 특별하게 생각하여, 항상 선교의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무할례자 디모데를 할례자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현지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현지인처럼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얻도록 할례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며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동안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가족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려웠던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2. 복음 때문에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한 앞으로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 16:6-10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바울 일행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경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드로아, 마게도냐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전략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욱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더욱 의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늘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모두 헛되고 죄악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그분을 만난 경험을 떠올리는 것,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이 받은 은혜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실 말씀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2.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나의 원함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부 미니홈피

사도행전 16장 1-5절 미션

1. 암송하기

- 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로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 4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 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2. 묵상하기

- 1)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자유를 포기한 경험이 있나요?
- 2) 도무지 희생과 포기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이유와 상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3)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셨을까요?

3. 기도하기

말씀을 읽고 느낀 점과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행 16:11-15

앞 길을 막으실 때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바울은 소아시아를 목적지로 두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예수의 영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서 유럽선교, 마게도냐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빌립보는 로마 은퇴 군인들을 포함한 로마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 이곳엔 유대인 회당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전 전도사역들을 보면 그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큰 기대를 갖고 도착한 빌립보에선 전도사역을 할 접착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본래 목적지였던 소아시아를 전도계획을 포기하면서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고 예측하던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일 동안 그곳에 유하며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할 때 바울은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강가로 나아갑니다(13절).

마침 그곳에 모여있던 여인들을 발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바울이 회당에서 펼친 복음 사역들을 생각해보면, 강가에서 고작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평생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14절). 옷감은 그 당시 가장 귀한 상품 중 한 종류였으며, 자색 옷감은 왕족이나 귀족이 사용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루디아는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되고, 그녀의 가정은 유럽은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에 지속적이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의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막으시고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사 그의 평생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이 주어 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9)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비로소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막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2.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때에 따라 양에게 필요한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행 16:16-18****동역자와 방해꾼**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해피인사이드**전보아스 목사**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다가 평생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또 기도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아닌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귀신을 힘입어 점을 쳐서 그녀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스토크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외칩니다(17절). 어찌보면 앞장서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일이 전혀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18절).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지식으로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곧 믿음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권면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을 통해 누가 그를 돕는 동역자이고, 누가 그를 방해하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귀신을 쫓아내게 되지만 이를 행할 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했습니다(18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큰 능력과, 큰 권세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헌신할 때 우리는 루디아와 같은 좋은 동역자도 만날 수 있지만, 반대로 방해하는 세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실지 기대하시고,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집시다.
2.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사역을 방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늘 나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영향력

행 16:19-34

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바울은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전도사역을 방해한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종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은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일이지만, 그동안 그녀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이들에게는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영업방해 죄로 잡아다가 재판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이를 살리시는 것에 목적을 두시지만 세상은 자신의 만족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여종의 삶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지만, 그녀의 주인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분노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죽여가면서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는데 기뻐하십니까?

당시 로마는 타종교에게 피해를 끼치는 종교적 행위를 철저히 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하고 변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로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한 뒤 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25절). 그리고 이를 다룬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진이 나고 모든 죄수들에게 매인 것이 전부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죄수는 탈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질을 맞은 후 혹독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원망 불평해야 하는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목격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많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외면하고 있는 비전과 사명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2.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으십니까?





행 16:35-40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

35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38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오늘 본문에선 동이 트자마자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라고 명했던 상관들이 부하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간밤에 지진이 나고 모든 죄수가 풀려났던 사건을 그들이 들어서 두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빨리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반전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본인이 로마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37절). 그리고는 상관들보고 직접 와서 그들을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합당한 절차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어기는 관료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관료들은 당장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 그들을 모시고 나가며 그 성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던 자들은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빌립보의 새신자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 맞고 옥에 갇히는 모습을 새신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과연 내가 이런데도 예수 믿는 것이 옳은가?’ 하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애초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더라면 매도 맞지 않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 맞음과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였고, 간수와 그의 가정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빌립보교회 새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곧바로 항의하기 보다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조용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때로는 지혜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잠 25:11).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주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편입니까?
2. 참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야 할 말과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행 17:1-9****복음의 힘**

1 그들이 암비불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해피인사이드**전보아스 목사**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전도를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이곳은 빌립보와 달리 유대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세 안식일, 3주에 걸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3절). 우리 믿음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인지 되돌아보고 오직 예수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이시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3주간 말씀을 열심히 전하자 굉장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4절). 이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담대히 선포할 때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역과 열매를 시기합니다. 회당에서 귀부인들을 포함한 여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니 그들은 시기심에 못 이겨 불량배까지 동원하여 난동과 소동을 부립니다. 그리고선 바울을 영접하였던 야손의 집까지 침입하여 야손과 여러 회심자들을 끌고 나가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이 고발하였던 내용은 바로 가이사 외에도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7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죄목입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유일한 왕이자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 복음에 힘이 있고 능이 있는 이유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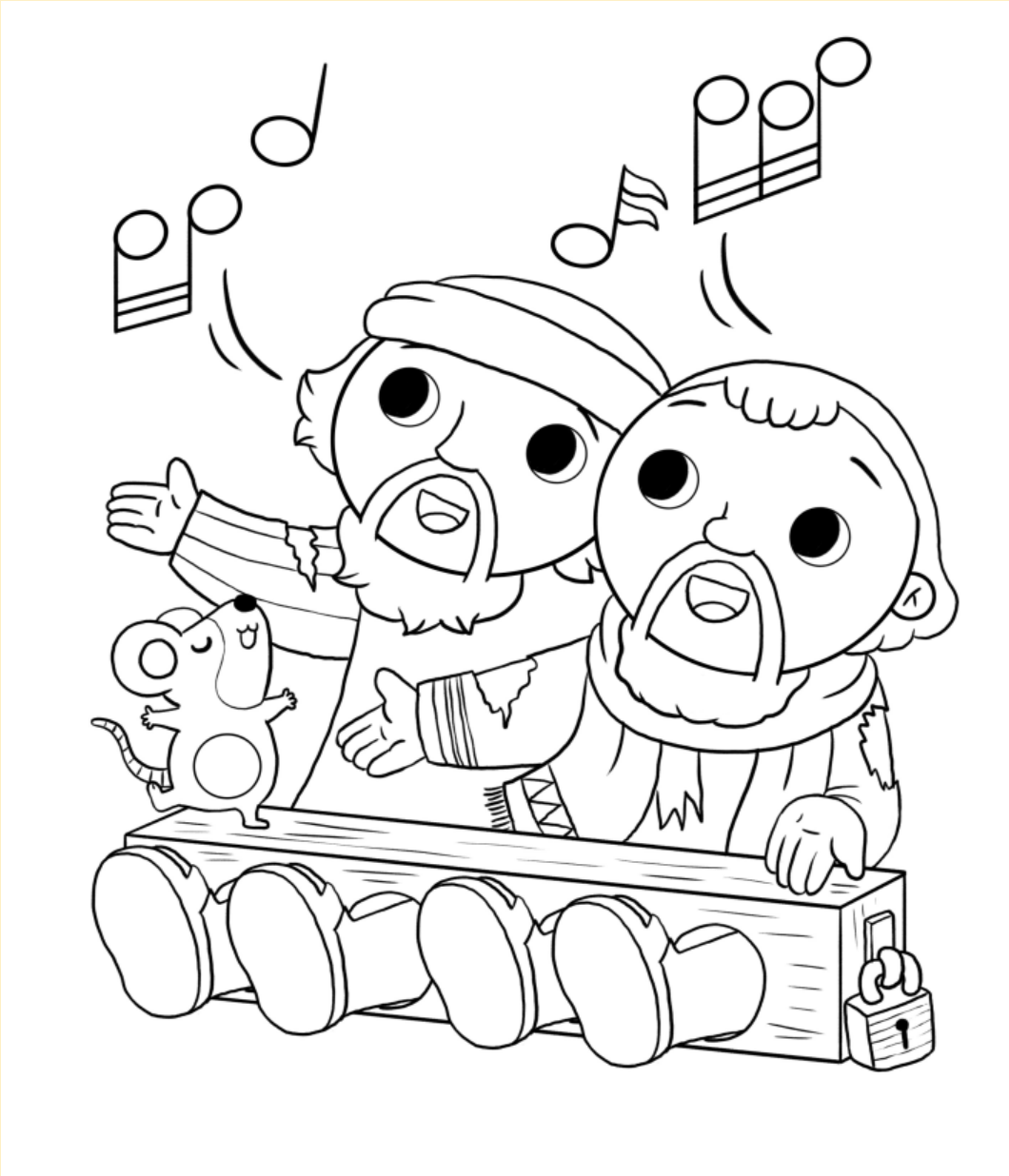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유아유치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색칠하기

사도행전 16장 19-34절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이에요.





행 17:10-15

순풍의 바람이 불 때

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
 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
 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

해피인사이드

이동원 목사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인 '보켈' 선교사님은 한국 전쟁 당시 포로선교에 있어서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분이십니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으로 피난을 떠나지만,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다시 한국 땅을 밟게됩니다. 선교사님은 인천과 서울에서 포로선교를 시작하시고, 평양에서도 포로선교를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평양에서 포로선교는 사람의 기준에서 매우 잘 되었습니다. 그는 평양에 오래 머물며 사역하고 싶었지만 상부에서 함양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갈등을 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이 보켈 선교사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이제는 베뢰아라는 지역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 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러웠다(11절)고 합니다. 그곳에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나며 바울의 선교사역을 부흥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대적자가 온다고 하여 또 다시 도망치듯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보켈 선교사님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함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 중공군의 남침으로 원산으로 피난하여,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켈 선교사님을 통해 포로수용소 선교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와 또 보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잠잠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은 돛단배입니다. 돛단배는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 잔잔히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옛날 노아의 방주에 조타실이 없었던 것처럼,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는 조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주권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원하는 곳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순풍의 바람을 일으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돛이 팽팽히 펴지고, 밧줄이 세차게 당겨지듯,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는 팽팽해지는 긴장과 걱정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불게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바람에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그 때 순풍의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하는 평안의 바람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셨나요?
2. 최근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립니다.





행 17:16-31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16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19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

해피인사이드

이동원 목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사역을 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는 단순히 2000년 전 아테네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에 철학하기를 기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논리성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전하고 변증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 철학을 따라 자신의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 많은 우상을 보며 마음에 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16절).

오늘날 우리는, 아니 예로 부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을 만들기 기뻐했습니다. 고대에는 그것이 보이는 우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에는 그러한 우상을 각자의 마음 속에 담아둡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이러한 우상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우상의 모습으로 끼어맞추고 조각하기 바쁩니다.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바울의 설교 한 토막은 큰 울림을 줍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행 17:25)"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수 많은 욕심에 따라 재단되거나 짜 맞추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죄에 더럽게 오염된 죄인은 도무지 그 분에게는 필요치 않은 존재입니다. 그 분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지존자이시고, 스스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을 감히 죄 많은 인간의 철학, 생각, 사고의 틀 속에서 재단한다는 것은 정말 돼지에게 진주를 걸어주는 것보다 더 끔찍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으신 그 분께서는 친히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영원한 자존자, 지존자께서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동일한 삶을 사시며, 인간의 하찮은 언어체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친히 설명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그다지 공정하지도 않은 형벌의 체계 속에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 분은 친히 그러한 보화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을 하나님의 의인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섬기신 그 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도무지 이 사랑의 왕을 자신의 틀 속에 재단하고자 할 수 없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내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나요?
2.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러한 영역으로 부르셨을까요?



**행 17:32-34****실패란 없다.**

32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해피인사이드**이동원 목사**

혹자들은 아테네에서의 전도사역은 사도바울의 큰 실패 중 하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33절에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으며, 이것은 숫적인 부흥을 경함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에는 도무지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아덴에서 전도가 가능했습니다. 아덴에서 단 몇 사람만 결신하였지만, 그 몇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선교사역의 성공 유무를 사람이 헤아리는 숫자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 또한 수치가 우상화된 현대인의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의 선교사역은 성공이었습니다. 아덴에서 그가 보여준 설교는 설교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철학하기를 좋아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 철학적이고 변증적인 설교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전한 그의 설교는 복음의 정수가 잘 담겨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데,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정수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이들이 부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세비우스라는 신학자이자 역사가는 그가 아테네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기어진 복음의 씨앗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감독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 곳에는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의 선교사역은 분명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또 사역을 하며 너무나도 쉽게 인간의 관점에서 성공유무를 판단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수치'를 우상화하는 곳이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 시기에 바울로 하여금 아덴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큰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공과 실패 유무를 판단하고자 하는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더욱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며,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실패한 것과 같은 삶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2.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분의 일하심을 기대해봅시다.





행 18:1-4

로마에서 떠나라!

1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 하니라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지난 월요일에 말씀 드린 포로수용소 선교로 열심을 다하신 보켈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번엔 소개 해드릴 포로수용소 선교사님은 '우드베리'입니다. 그는 포로수용소 내에서 중공군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인물로 잘 알려져있습니다. 원래 '우드베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다년간 선교 사역을 하시다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서도 화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국어에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포로들 중에 중국인이 있는 것을 알고 포로수용소 내의 중공군 선교를 집중해서 진행해가십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는지, 기록에 따르면 매일 새벽예배 때마다 4000명이 넘는 포로들이(그 중에서는 중공군이 다수 있었습니다) 들으러 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 중국인 포로들 중에서는 첫 달에만 75명이 결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했던 한 방문객은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800명의 완전히 교화된 중국 공산당원들이 복음을 듣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 하나님이 공산군의 전쟁을 취하셔서 그것을 철의 장막 뒤에서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 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된 것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개입하였기에 그들은 중국 땅에서 벗어나 한국에 왔고, 그들이 잡힘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사라는 암울한 이야기 뒷 면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에 인생의 고난이 다가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쫓기듯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명령을 받아 쫓기듯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섭리하셔서 만남을 이루십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로, 이들은 이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며 그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곧 유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못해 떠밀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는 극심한 고난의 광풍이 들어닥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버릴 때가 있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떠밀리듯 떠나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침략을 통해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듯,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고난을 통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원하지 않지만 등떠밀리듯이 이동해야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2.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신 유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행 18:5-11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 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오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바울이 떠밀려 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뢰아를 건너, 아덴을 넘어, 이제 떠밀려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도착점에 다달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9-10절에서와 같이 말씀하시며, 그 성에 자신의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동역자와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와 마게도냐 지방에서 받은 '연보'를 가지고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생계를 위해 천막을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완전히 매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장소까지 허락하십니다. 원래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이 극심히 대적하고 비방하자 바울은 회당과의 관계를 끊습니다(6절, 옷을 털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장소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비해두셨는데, 이 집은 마침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더 듣기 원하는 자들은 이제 회당 바로 옆집에 오면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하셨습니다. 9-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부터 쫓겨 여기까지 왔으니, 그 반대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할 때 심정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밤이라는 말은 참 따뜻한 말입니다. 밤은 은밀한 것을 상징합니다. 바울의 은밀한 침상이었을 수 있고, 공적이지 않은 사적인 공간에 예수님께서 바울과 1대 1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세심히 찾아오시고, 각별히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 떠밀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간도착 지점 지점마다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며,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능히 채우실 것입니다. 돈, 동역자, 장소를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채움은 단연 예수님 그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오늘 나의 삶에 채워주신 필요는 무엇인가요?
2.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 18:12-17****재판관 하나님**

1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3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 16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해피인사이드**포아론 목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편지를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야 하고,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묻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면 참 신이자,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게 되는 갈리오 총독에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갈리오 총독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갈리오의 그의 말을 가로챘고, 유대인들의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길을 내시고, 선한 길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법정에서 쫓겨났고, 사람들은 유대인의 대표인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갈리오는 끝까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으로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과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주님과 상관은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가는 대로, 세상의 문화와 방법으로 해결해서도 안됩니다. 재판관이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선택해 나아가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우리 인생의 주관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2. 두렵고 떨림으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행 18:18-23****자나 깨나 복음**

18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 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해피인사이드**포아론 목사**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모든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것의 쓰임새, 금액, 구매처, 사용 요령, 동호회 등 물건에 대한 시간과 관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그 물건을 생각합니다. 물건에 대한 검색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장기간 여행을 마치는 우리들의 마음, 체력은 어떨습니까? 아무리 여행이 재미있다 할지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고향의 음식도 생깁니다. 사도 바울도 어쩌면 여행 막바지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속히 여행을 마무리하고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주님께, 복음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아가야에서 그는 좋지 못한 일을 당했지만, 겨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그곳을 털고 달아나는 것이 합리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달아난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을 머물며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맡은 바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들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그는 주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그에겐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정 중에도 그는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와 교회의 안부 이어서 복음 전파를 놓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정말 속도감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와, 시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복음을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어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2.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채우고 싶나요?



**행 18:24-28****나도?**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 28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해피인사이드**포아론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크고 선한 일들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학식이 깊은 자, 재물이 많은 자, 명성이 있는 자들만 그분의 품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주리고, 홀로 있는 사람들만을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선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3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24절에서 성경의 시선은 아볼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에베소에 이르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배웁니다. 그 후에 그는 아가야로 건너가 고린도교회에 귀한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등장도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과 에베소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만 두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일의 진행을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바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자신감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까 염려와 걱정 혹은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말의 수려함과 지식의 방대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전해집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과 생명일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폄하하는 일들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나를 내려 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께 쓰임 받음에 기쁨으로 맡겨진 자리를 사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2. 사역을 하면서 자책하거나, 의심했던 적이 있나요?





행 19:1-7

요한을 넘어 예수로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3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에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어떠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디 출신인지, 다만 어떤 제자들이라는 수식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전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4절을 통해 요한의 세례가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몰렸습니다. 그의 세례를 받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예비했던 주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은혜와 기쁨, 감격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이적과 방언, 사역들이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입니다.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면 장소, 사람, 상황 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 소통하며 올바른 관계를 쌓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을 넘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장소나 사람, 상황을 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했던 적이 있나요?
2. 신앙생활하며 감격과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그런 감정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 19:8-20

모양을 넘어 능력으로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 15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과 발로 만져지는 물질의 세계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바울을 통해 일어난 기적들은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바라보며 '저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수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능력의 출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아무리 바울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능력을 베풀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술 하는 유대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 그들은 바울은 보며 자신감을 얻었고, 곧바로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악귀가 오히려 반격했습니다. 악귀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안수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안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 능력 없이, 아무 은혜 없이 자신을 믿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양에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선 안됩니다. 모양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모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통, 방법, 습관들도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의 신앙생활이 습관으로 굳어져 있지는 않나요?
2. 굳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장년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12-23절> 쓰기

1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3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15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8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